

“DJ-오부치 선언, 한일 미래 큰 길 열어” 한 목소리

‘DJ 10주기’ 추도식...여야, DJ 정치자산 엇갈린 방점 이해찬 “정치적 스승 뒤 따를 것” 황교안 “정치보복 없었다”

여야 정치권은 18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DJ 정신’을 기렸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양국관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점을 한목소리로 높이 평가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화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일제히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날엔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자리를 지켰다.

문 의장은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이웃 나라들과의 우호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님의 ‘조화’와 ‘비례’의 지혜는 더욱 소중해진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정당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놓고 서로 방점을 다르게 찍으며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정당임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전 대통령이 ‘협치의 달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표는 추도사에서 “위대한 민주주의 사이자 정치가였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결국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면서 “저에게 정치적 스승이다. 김 전 대통령의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님은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 정치보복은 없었다”며 “그 장면은 우리 국민이 갈망하는 통합과 화합의 역사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DJ연합이라는 기상천외한 연합정치를 통해 소수파의 정권획득을 이뤄냈다”며 “즐거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었다”고 회고했다.

심 대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을 온 몸을 던져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며 정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정치, 평화롭지 않은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추도사에서 지난날 평화당 당원들과 함께 하의도 DJ 생기를 방문한 사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문화상 국회의장(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실을 상기하며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산맥”이라며 “앞으로 후세들은 대통령을 거대한 산맥, 큰 바위 얼굴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대중 정신’을 당의 뿌리로 삼는 민주당과 평화당, 평화당 탈

당 의원모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대안정치 ‘호남신당’ 창당 움직임 본격화

‘제2의 안철수’ 영입 물밑 피치...위력은 ‘글썩’

민주평화당 탈당파로 구성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안정치는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인 오는 11월 15일 이전에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일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워 서울·광주·경기·전북·전남 등 5개 시·도당 창당준비에 나서고,

추석연휴 시작일인 내달 12일 이전에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대안정치가 창당 목표시점보다 두 달이나 앞서 창준위를 구성하려는 것은 분위기에 예열로 추석 밤상에 제3지대 신당을 화젯거리로 올리려는 계산에서다.

대안정치는 ‘하드웨어’ 격인 창당준비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격인 인재영입에도 물밑 피치를 올리고 있다. 신당의 간판

이 될 수 있는 ‘제2의 안철수’ 모시기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대안정치는 중도성향의 확장성 있는 정치신인을 발굴, 신당 대표직과 함께 공천권 등 전권을 넘겨줘 내년 총선 지휘를 맡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대안정치의 신당이 정치판을 뒤흔들 위력을 발휘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특히 정계개편의 구심점이 될 ‘제2의 안철수’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성엽 대표와 천정배·박지원·장병완 의원 등 중진 4명이 인재영입을 책임

“국정운영 연속성·지역주민 체감성과 달성”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연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이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2기 균형위 위원장으로 연임됐다.

균형위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15일 2년의 임기가 종료된 송 위원장을 16일 2기 위원장으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송 위원장은 학자 출신 균형발전 전문



가로서 지난 2년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구현에 이바지해왔다.

특히 정부 각 부처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

칭 복원, 특별법 및 특별회계 정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면제 대상사업

확정,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생활 SOC복합화, 혁신도시 시전2, 한전공대 설립 지원 등을 무난하게 이끌었다.

균형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달성을 위해 주마기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역사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 되새겨”

문 대통령, DJ 서거 10주기 SNS 통해 추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이날 SNS에 올린 추모글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는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방문해 일본 참의원회와 중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의원 분회의장에서 연설할 때 강조한 대목이다.

김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며,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당시 일본 연설을 상기한 것은 한일 우호관계 증진에 공을 세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동시에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



에 나선 일본에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오부치 총리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 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약속이었다”고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기에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낼 수 있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라는 담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함께 걸사는 길에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장성 전원주택 토지매매

* 이제 교통이 최고입니다. *

- 광주에서 15분 ⇒ 앞면 15미터 장성 IC, 장성호(담) 1분 (국도도로 12m접)
- 최고의 전원주택 / 물류창고.사무실

① 300평 - (평당 80만원) - 매가 2억4천만원(용1억5천)

② 1,080평 - (평당 70만원) - 매가 7억5천만원(용4억5천)

- ① 장성을 용강리·장성담 옆 (국도도로접함) 1,370평 → 매가가 1억 5천만
- ② 장성을 덕진리·장성담 위 (도로접함) 500평 → 매가가 2억5천만
- ③ 장성을 남면·첨단지구5분 (도로접함) 1,090평 → 매가가 3억5천만
- ④ 담양군 금성면 (메타세콰이어부근 도로접) 1,000평 → 매가가 5억

상가 매매 [급매]

- 북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 대형학원, 한의원, 스포츠, 기타적합)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전체평수 - 300평)
- 보증금 5천만 월 400만 임대가능

감정/시세 → 15억
매가 → 7억5천

① 상가매매 - 상무지구 메가박스 앞 (7층 중 6층) 보 3천 월 150만(임대가능) ▶ 매가가 2억8천만 (용1억4천8백)

② 첨단지구 10층중10층 (상가, 사무실) 보 1천 월50만 (임대가능) ▶ 매가 8천만 (용 3천만)

③ 원룸매매 (현대아파트 입구 앞) 용평1C1분, 전대5분 토지 80평 건 165평 (원룸9개, 1.5룸6개) 보3천 월수익 500만 ▶ 매가 7억

④ 고시원매매 - 조대 후문 3분 토 79평, 건 159평 룠 50개, 월수익 1,000만 예상 ▶ 6억8천만

경매 교육 [기초, 특수] 전문

★ 경매교육 특수반 모집 ★

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수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연필매)

※ 10억짜리 부동산을 3억에 가능

경매교육 하면서 (실전) 바로 (수익창출) 합니다.

1. 감정이 2~3회 유찰 물건 (절반가격)
2.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리모델링
 - ① 초급 실전반 - (기초 + 실전) - 무료교육
 - ② 중급 실전반 - (기초 + 실전 + 특별)
 -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격)

매주 (월, 수, 토) 개강
※ 사무실 쓰면서 전문 직업 하실분 (책상, 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분석스터디)

010-7384-7800

010-6670-9800